

난민신청의 큰 변화

2023년 6월 9일 입관법 개정안이 가결 성립되었습니다

일본에서는 난민신청 중에는 강제송환이 정지되어 「가방면」이라고 하는 조치를 받아 「체재」가 연장되어져 왔습니다. 이번의 입관법 개정은 난민신청에 의한 장기체재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3회 난민신청을 인정받지 못했을 경우에는 강제퇴거를 당하게 됩니다. 일본에서는 난민 인정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라 난민으로 입국을 희망하는 외국인으로서서는 아주 큰 문제입니다.

「특정비영리활동법인 이주자와 연대하는 전국네트워크 (이주연)」 등의 7 단체는 「무슨 일이 있어도 내민 손은 놓치 않습니다. 그래서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에 대해서 상세히 알고 싶으신 분이나 지원이 필요한 분은 하기의 단체 또는 FICEC 에 문의해 주십시오.

외국인 119 네트워크(119 Network)

TEL 090-3009-3619 FAX 048-834-0237 Email: gaikokujin119(at)yahoo.co.jp

https://119network.jimdo.com/ 언어: 영어, 스페인어

덕분에 260 호를 맞이하게

「인포메이션후지미노」는 후지미노시·후지미시·미요시 마치에서 생활하고 있는 외국인을 위한 다언어생활정보지로서 260 호를 맞이했습니다. 창간호를 시작으로 26년간 걸렸습니다. 그동안 외국인의 사정이나 생활도 26년 전과는 많이 변화된 것 같습니다. 생활상담의 내용은 DV 피해자상담, 쉼터에서의 보호

가 많았던 초기와는 달리 요즘은 「학교교육·진학」, 「이혼이나 상속」 등의 상담으로 변화해 왔습니다.

다언어의 내역도 「일본어·영어·타갈로그어·한국어·중국어·페르시아어·스페인어·포르투갈어」에서 「베트남어·네팔어」 번역을 희망하는 목소리도 듣게 되었습니다.

지난 26년간 많이 바뀐 것은 외국인 본인들의 「정보량」입니다. 인터넷이나 핸드폰의 보급 확대로 외국인 자신의 네트워크가 생겨 간단히 정보를 검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포메이션후지미노」도 변화해 가는 시대의 요구에 대응해 가지 않으면 안됩니다.

이 땅을 생활의 거점으로 선택해 뿌리를 내리려고 하는 여러분들을 응원하는 정보지로 남고자 합니다. 「인포메이션후지미노」는 FICEC 의 홈페이지, Instagram, Facebook 과 지면이라고 하는 다양한 매체를 연동하여 「외국인이 일본에서 생활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알려 가겠습니다. 동시에, 일방적인 정보제공에서 대화형의 정보지로 진화해 가기를 희망합니다.



FICEC 에서 베트남어를 번역하고 통역자로 활약하고 계시는 민상이 10 월 1 일, 후지미시국제교류포럼 「외국인토크」 에서 스피치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베트남 국적의 도오밍환입니다.
 14년 전에 일본에 왔습니다. 일본어 학교에 다닐 때에는 일본어를 잘 못해 부끄러워서 별로 이야기 할 수 없었습니다. 질문을 받으면 언제나 미소만 지으며 대화를 연결해 갈 수가 없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후, 취직하지 않고 결혼. 그리고 아이를 키우는 생활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이가 생기고 나서 다른 어머니들과 이야기할 기회가 늘었습니다. 다들 친절하고 양육에 관한 어드바이스나 놀러 다닐 때의 좋은 정보까지 여러가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어느새 일본어 실력도 늘고 사람들과 이야기할 자신감도 생겼습니다.
 아이들 덕분에 일본의 교육시스템 체험을 할 수 있어, 아이를 키워가며 여러가지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베트남과는 전혀 다르기 때문에 재미있는 일, 놀랄 일도 많이 있습니다. 1학년 부터 혼자서 학교에 가는 것은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걱정이 되어 숨어서 아이가 등교하는 것을 보기도 했습니다만 지금은 안심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아이가 자라면 어려운 질문을 많이 할 것 같습니다. 그를 위해 저 자신 또한 일본어를 확실히 공부해 자신을 성장시키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년기는 짧고 인생에서 한 번 밖에 없으니까 가능하다면 아이들에게는 즐거운 추억을 많이 만들어 주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일본에서 즐거운 생활을 보내고 싶습니다.

12 / 10

やさしい日本語 まちさんぽツアー

「빗자루」도 만들고 「은행」도 먹읍시다

후지미노 동네를 같이 걸어 보시지 않겠습니까?
 쉬운 일본어로 안내하겠습니다.

- 은행나무 가로수를 산책합니다
- 빗자루 (청소도구) 를 만듭니다
- 차를 마시면서 「은행」 (은행나무의 열매) 를 먹읍니다.



일시	12/10(일)12:30-17:00	
집합	후지미노시야쿠쇼 본청사입구	
참가비	300 엔	
신청	인터넷/전화/E-mail ※정원 20 명	
연락처	후지미노시교육위원회 사회교육과 049-220-2088 (8:30-17:15, 월-금) E-mail:bunkazai@city.fujimino.saitama.jp	

야쿠쇼나 학교로부터의 통지를 이해할 수 없을 때는 FICEC 에 오십시오

- 납세통지
- 전기, 가스 등의 지불통지
- 치료권고서
- 입학신청서 제출
- 취학시 건강검진통지
- 마이넘버 신청
- 전출입시에 야쿠쇼에서 주는 서류
- 아동수당, 아동부양수당, 편부모 가정신청
- 체육제나 수학여행 등 이벤트에 관련된 통지

